

전북자치도 ‘제3회 CEO 지식향연’ 개최

트렌드 코리아 2026 강연... 기술·소비 변화 트렌드 제시
김관영 도지사, 민생회복·산업전환·소상공인 지원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CEO 지식향연’을 개최했다.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CEO 지식향연’이 열렸다.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조찬 포럼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 전북연합회, 전북소상공인 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지식 공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찬과 AI 관련 지식영

상 상영에 이어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올해 민생 회복과 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라며 “AI·바이오·재생에너지·방산 등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생활경제 안정 대책을 지속 확대해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전북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찬과 AI 관련 지식영

상 상영에 이어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올해 민생 회복과 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라며 “AI·바이오·재생에너지·방산 등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생활경제 안정 대책을 지속 확대해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전북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찬과 AI 관련 지식영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발족

새만금청,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



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되었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적 확대 운영

4만여 농가에 초미세 예보 제공... 농업 현장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농촌진흥청이 기상재해로부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전국 모든 시·군(울릉도 제외)으로 확대된다.

2016년 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사실상 전국망을 구축하며 농업 현장의 기상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단위(30×30m)로 세분화된 초미세 격자 기반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지형·고도·지표면 특성 등을 반영해 재분석함으로써, 토지대장에 등록된 거의

모든 농가에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을 활용하는 농가는 4만 2,000여 곳에 이르며, 농가들은 ‘농장 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 등 3가지 핵심 정보를 통해 기상변화와 재해 위험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기온, 강수량, 풍속 등 11종의 상세 기상지표를 농장별로 제공하며,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작물 재해’ 항목에서는 고온해·저온해·동해 등 단기 재해는 물론, 가뭄·습해·병해 등 장기적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까지 예보한다. 위험

수준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사전 알림 형태로 전달된다.

또한 ‘대응조치’ 기능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작물별로 사전·즉시·사후 관리 방법을 안내해 농가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 접근성도 크게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스템을 전면 개방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교육문화정보원 ‘농사ON’, 농협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접점을 확대했다.

올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 농업인의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해당 시스템이 농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만족도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 고도화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API 연계를 추진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예보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재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농업 기상재해 예측은 생산 안정의 핵심 요소”라며 “정확도 향상과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기부식품 접수액 121억·전국 4위 기록

‘그냥드림’ 시범사업 7곳 선정... 식품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망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푸드뱅크가 지난해 기준 기부식품 접수액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북의 기부식품 접수액은 121억6,0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인구와 지역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실적으로, 도의 지원정책과 민간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북에는 광역 1개소, 기초 28개소 등 총 29개의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운영 중이며, 도는 올해 이들 기관에 총 5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사업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자는 약 1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1,393개 시설·단체에 72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전달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식품기부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광역푸드뱅크를 중심으로 운영기관 대상 정기 교육, 우수기관 시상, 기부 활성화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 도입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전북이 운영기관 대상 정기 교육, 우수기관 시상, 기부 활성화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 도입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전북이 운영기관 대상 정기 교육, 우수기관 시상, 기부 활성화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도, 보육교사 보수교육 평일과정 확대 개설

주말 중심 교육을 평일 5일 과정으로 전환... 교사 휴식권 보장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보수교육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5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총 1,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 시간대를 주말 중심에서 평일 과정까지 확대 개설했다. 그동안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집중 운영돼 왔다. 방학이 없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출근해야 하는데, 주말까지 반납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교사들의 만족도 저하는 물론 보육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전북대학교는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대체교사를 확보하고,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주말에만 가능했던 교육을 평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교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2관왕 달성

장수·부안 사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경진대회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2건을 동시에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5일 세종컨벤션센터

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다.

도는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 TF의 검증과 논리 보강

과정을 거쳐 2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수상작들은 △도민 생활 불편 해소형 규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수군의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동시에

이뤄낸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차지했다. 부안군의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 사례는 자체 조례 개정으로 상시(24시간) 조업을 가능케 해 새꼬막 생산량 증대와 어업인 수입 증가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망 정영주(1946. 10. 14.생 2025. 10. 10.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5년단579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김광현
- ▶피상속인: 망 정영주(1946. 10. 14.생 2025. 10. 10. 사망)
- 최후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만내로 38, 302동 1203호 (평화동2가, 평화3차 골드클래스)
- ▶공고인: 정만식
- ▶공고기간: 2025. 11. 27. ~ 2026. 1. 26.
- ▶상속한정승인 수리일: 2025. 11. 4.
- ▶주소: <청구인> 정만식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11동 1202호 (평화동1가, 코오롱아파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